

새로운 '마을살이'로 다함께 행복합니다

대구광역시 울하동 부근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지역이 있다. 바로 안심마을이다. 이곳을 이끌어 가고 있는 힘은 바로 주민들로 이루어진 안심주민공동체에서 나온다. 안심마을의 삶은 보통의 도시의 삶과는 다르다. 정서적인 깊이는 유대가 있고, 경쟁 대신 함께하는 나눔이 있다. 이곳 주민들은 협동조합 '달콤한 밥상'에서 반찬을 사고, 안심협동조합 '땅이야기'에서 유기농 먹거리를 산다. 마을카페 '사람이야기'에서 만남을 갖고, 학교를 마친 아이들은 협동조합 '동지'에 가서 집처럼 편안하게 휴식을 취한다. 함께 의논하고 해결하면서 새로운 마을살이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마을을 꿈꾸며

대구광역시 동구에는 주민들이 합심해서 만든 마을이 있다. 바로 동구 울하동 부근에 자리 잡고 있는 일명 '안심마을'이 그 주인공이다. 언제부터 누가 안심마을이라 불렀는지 모르지만,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주민들이 하나씩 하나씩 크고 작은 주민단체들을 만들어 함께 공유하고 살아오면서 안심마을이 형성되었다. 어느 날 갑자기 도시개발계획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이 걸쳐 뜻을 같이 하는 주민들이 정성을 기울여 만들어 온 곳 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살지만 아주 특별한 마을,

그곳이 바로 안심마을이다. 이곳에서의 삶은 도시 속에 있으면서도 보통 도시의 삶과 다르다. 안심마을 주민들을 말한다.

“우리가 사는 마을이 타인들이 스쳐 지나가는 공간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공동체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경쟁하는 데 평생 에너지를 다 쏟는 그런 삶이 아니라 조금 늦게 가더라도 정서적으로 더 연대가 강해지는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것이죠.”

이곳 안심마을에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여러 주민단체들이 공존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안심협동조합 땅이야기, 협동조합 달콤한 밥상, 협동조합 동지, 반야월 행복한 어린이 도서관 '아띠', 사회복지법인 한사랑어린이집, 레드리본 사회적협동조합, 울하 아나바다위원회, 협동조합 공터, 마을학교 행복한 아이들 등이 그것이다.



아띠 어린이날 행사

아띠 어린이기자단 활동

그중에서도 반야월 행복한 어린이 도서관 '아띠'는 대구시의 안심주민공동체의 도화선이 된 곳이다. 이곳에서는 약 35명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일하고 있으며 월급은 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띠에 대한 애착은 다들 남다르다. 일을 하러 온다기보다는 놀러 오는 곳처럼 이들은 아띠에 오는 것을 즐거워한다. 이들의 놀이는 도서관을 꾸미는 일, 사람들과 만나서 모임을 갖는 일, 책을 정리하는 일,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교육은 무엇인지 서로 의견을 나누는 일 등이다. 이들은 도서관이 책을 읽는

곳이지만 아띠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소통할 수 있는 곳, 주민들이 서로 마음을 털어놓고 위로를 주고받는 곳으로 여겨지기 원한다. 아띠의 관장은 이렇게 말한다.

“저는 처음 사서로 자원봉사를 하다가 어머니 양성교육이라는 만들기 수업에 참여하였으며, 그 이후 주민 중심으로 운영하자는 취지에 공감하여 적극적으로 관장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여기에서 일하는 모든 주민들이 비슷한 동기에서 시작했지요. 의무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열정적으로 할 수 없을 텐데, 스스로가 원해서 하니까 생기는 이익이 없어도 모두가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 만들어낸 첫 열매가 바로 아띠였다. 아띠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면서 보다 다양한 일을 찾아 나서게 된 것이다. 여러 주민단체 회원들이 모여 교제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중론이 모아졌고, 자연스럽게 아띠에 이어 안심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마을기업을 세우게 되면서 안심주민공동체는 점점 더 확대되어 갔다. 세월에 따라 어떤 단체는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단체들이 생겨나기도 한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주민들의 뜻에 따라 주민들의 손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라는 것이다.

안심마을에 등지를 튼 진짜 배움터들

방과후 학교 ‘등지’. 이곳은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주택이자 가정집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금세 색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입구에 있는 하얀 벽에는 화가의 재능 기부로 그려진 벽화가 화사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그 알록달록한 색은 마을 주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합심하여 완성한 것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 말 그대로 동네 꼬마들의 방과 후 생활을 케

어해 주는 방과 후 학교 ‘등지’는 또 하나의 가정처럼 따뜻한 학교이다.

등지는 2012년 마을기업으로 설립된 교육협동조합이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주축이 되어 “내 아이를 잘 키워보자!”라는 순수하고도 절대적인 목표를 가지고 함께 주택을 매입해서 공간을 구성한 것이다. 1층에는 방과 후 마을학교 등지, 어른들의 배움 놀이터 ‘울하는 대학이다’가 있고, 2층에는 심리상담 공간인 ‘마음 이야기’가 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하교 후 함께 모여 간식도 먹고 선생님과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는말 그대로 동네 아이들의 등지이다. 학습을 강조하기보다는 목공예, 한지공예, 뜨개질 등의 만들기 수업 뿐만 아니라 물놀이, 기차여행 등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과도한 사교육으로 아이들이 지칠 염려는 없다.

아이들만 배움을 즐기는 것이 아니다. ‘울하는 대학이다’에서는 부모들이 통기타, 미술, 요리 등 서로의 재능을 나누고 배워나가면서 어른들의 취미 활동과 자기성장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다.

한사랑어린이집은 2003년에 저소득층 자녀 및 발달장애아를 대상으로 통합교육을 실현하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법인으로서 출발했는데, 안심마을의 여러 단체 중에서도 오래된 안심마을의 터줏대감이다. 한사랑어린이집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장애아를 위해 정규 학교가 아닌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했어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러한 경험을 동네에서 장애 문제를 풀어가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한사랑어린이집을 시작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를 시설로 보내지 않고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또 장애인이 지역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지역공동체로서 발전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등지 조합원 교육



행복한 공부방 문학교실



행복한 공부방 동네탐사단 활동

2011년에 문을 연 ‘행복한 어린이 공부방’은 아이들의 방과 후 학교 역할뿐만 아니라 맞벌이 부모를 둔 아이들에게 저녁식사까지 챙겨 주는 엄마와 같은 곳이다. 작은 도서관도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토요일에는 주민 강좌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이용하는 엄마들이 많다. 행복한 어린이 공부방 대표는 이렇게 계획을 밝혔다.

“처음부터 이걸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아니었지만 자연스럽게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마을에서 평생 좀 더 삶을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들이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가는 게 꿈이에요. 큰 욕심은 내지 않고 스스로 즐기면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삶의 조건들을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심마을의 배움터에서는 지식을 배우지 않는다. 이곳의 배움터에서는 사람을 배운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다.

안심마을을 푸르게 지키는 푸른 먹거리터

안심마을에서 또 하나 안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먹거리이다. “아이를 잘 키우자!”에서 더 나아간 생활철학은 “바른 먹거리를 지켜 나가자!”로까지 발

전했다. 환경오염은 물론 먹거리를 이용해 사람들을 속이고 이익을 취하는 일부 사람들로 인한 사고가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요즘이기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더욱 귀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안심협동조합 ‘땅이야기’이다. 친환경유기농식품매장인 이곳은 언뜻 보기에는 보통의 유기농 먹거리 매장과 비슷하지만 보통의 가게가 아니라 주민들이 합심하여 만든 협동조합으로서 마을의 주민이 주체가 된 곳이다. 그러니 더 믿을 수 있다. 깨끗한 매장 안에는 각종 산지에서 직접 공수한 유기농 채소와 빵, 유기농 재료, 메주까지 건강한 먹거리가 사람들을 반긴다.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에 관심이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조합원이 되어 안전한 먹거리를 구입할 수 있다.

2010년에 설립된 사회적 기업인 동구행복네트워크는 음식사업과 문화사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특히 웰도락 사업을 통해 급식, 도시락, 뷔페 등으로 지역 내에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한편, 지역 주민들을 위한 건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달콤한 밥상’은 안심마을의 젊은 주부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친환경 로컬푸드를 이용하고 화학조미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덜 맵고 덜 짜고 덜 달지만 안전하고 건강한 반찬들, 그래서 오히려 더 달콤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선주문 받은 분량만큼만 만들기 때문에 매일 100% 소비되어 더욱 믿음이 갈 뿐만 아니라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한다. 착한 먹거리를 통해 건전한 먹거리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안심마을을 훈훈하게 하는 만남의 터

2012년에 문을 연 ‘사람이야기’는 발달장애인을 고용한 마을카페이다. 이곳은 유기농 커피, 친환경 홈메이드 음료 등을 제공하고 동시에 마을정보 계

시판, 마을모임 네트워크 및 모임 공간을 제공하는 소통의 장소이다. 땅이야기와 함께 매달 음악회를 열어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사람이야기 대표는 이렇게 말한다.

“한사랑어린이집 부모 모임 회장으로 활동하다가 원장님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 또한 장애아의 부모로서 성인 장애인과 함께 지내면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마을카페를 운영하면서 다른 것도 해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사람이야기를 주민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서로 배우고 소통하는 마을카페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어요.”

또한, 레드리본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카페인 ‘빅핸즈(Big Hands)’가 있다. 큰 박수, 큰 격려, 큰 도움을 뜻하는 빅핸즈라는 이름의 이 카페에서는 에이즈 감염자들이 일하고 있다. 이 곳은 제대로 된 커피 맛을 위해 엄격한 블라인드 테스트를 거쳐 미국 장애인연맹에서 로스팅빈을 유통하는 업체와 대구의 한 청년창업기업을 거래처로 정했으며, 수제 제품을 주로 사용하고 원두는 일주일 이내에 소진하는 등의 전략으로 차별화된 품질을 자랑한다. 수익금 전액은 에이즈 예방과 복지에 사용된다. 특히, 에이즈 감염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외되지 않고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0년 12월부터 매월 1번씩 열리는 율하 아나바다 장터 역시 주민들이 만나고 어우러지는 장소이다.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중고장터로서 단순히 물건만 사고파는 것이 아니라 각종 공연이나 문화행사가 같이 열리므로 마을의 이벤트와도 같다. 율하 아나바다 장터의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이렇게 말한다.

“처음에는 어린 아이를 둔 엄마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만나 수다를 떨고 차를 마시다가 뜻이 맞는 이웃들과 함께 마당에서 물건을 교환하면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동네 주민들은 누구나 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아나바다에 와서 물건을 팔 수 있는 열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네 주민들

과 관계가 넓어지는 게 더욱 의미가 있어요.”

율하 아나바다 장터는 그 참여하는 주민들의 범위가 점점 다른 지역으로 넓어지고 있으며, 마을 장터를 통해 동네 주민들끼리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지고 있다.



사람이야기(마을카페) 행복음악회 공연

안심마을을 움직이는 주민들의 힘

안심주민공동체 사람들은 사는 게 즐겁다고 말한다.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여러 다양한 단체들을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운영해 나가는 일이 녹록치가 않지만 그들은 삶이 재미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 일을 하는 거니까 즐거운 것 같아요.”

“엄마들은 육아에 찌들어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내재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공동체 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맛본 거죠. 정말 즐겁고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힐링이 되는 일이지요.”

“함께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더 좋습니다. 나 혼자였으면 못했을 텐데, 옆에서 함께 해 주니까, 내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도 서로 도와가면서 해낼 수 있게 됩니다.”

“결국은 사람을 만나는 일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고 같이 무언가를 해나가는 것이지요. 아파트는 닫힌 공간이지만 그곳에서 나와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열린 삶이 되는 것이지요.”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어떤 구심점이 되는 리드 조직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안심주민공동체에 어우러진 단체들은 모두가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로 이어진다. 수직관계가 아니라 철저하게 수평관계로 말이다.

사실, 예산 마련에 대한 고충도 적지 않다. 안심주민공동체의 단체들은 대체로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또는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가 많았다. 운영비나 인건비 등의 경비는 모든 단체가 고민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특히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현실적인 과제들에도 불구하고 안심주민공동체가 신바람 나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원하는 곳을 향해, 같은 생각을 공유하면서 사람 냄새 나는 마을살이를 직접 실천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한 세상이 안심마을에서는 낯설지 않다. ✨

Interview

강현구 /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대표

“함께 의논하고 해결하는 주민들의 공동체!”

Q. 처음 안심주민공동체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요?

A. 2000년대 초 주민단체들이 모여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고 했는데,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오갔어요. 사교육에 물들지 않은 교육으로 아이들을 잘 키울 수는 없을까, 경쟁에 치이지 않고 좀 더 인간답게 사는 마을을 만들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들을 공유하다가 나온 것이 바로 '도서관 아띠'였습니다. 주민들의 힘으로 아띠를 운영해 보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또 그러한 마을의 주민들이 이끄는 단체의 필요성도 강하게 인식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하나둘씩 마을 주민들의 단체가 생겨나면서 오늘날의 안심주민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Q. 사회적협동조합 동행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A. 어떤 일을 할까 뜻이 맞는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다가 이 동네에 친구, 후배, 선배 등 편한 사람들이 있고 내가 살아왔던 곳이므로 “여기서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협동조합이 아니라 내마을형 사회적기업으로 시작했고 그 후 사회적기업 형태로 운영하던 것에서 더 나아가 2014년 7월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Q. 협동조합 형태로 새롭게 출범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A. 협동조합으로 일하게 되면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또한 정부의 사회적경제 장려 정책의 차원에서 우선계약을 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습니다. 즉, 보다 마을단체의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수익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새롭게 출범한 것입니다.

Q. 최근에 안심주민공동체의 변화된 흐름이라면 무엇이 있나요?

A. 최근 1~2년에 걸쳐 협동조합이 많이 생겨난 것이 가장 큰 변화일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보다 실질적인 사회적 경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서로 평등한 관계에서 주민들의 욕구에 필요한 모든 삶의 문제들을 마을공동체적 방식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점입니다.